

“당신의 헌혈, 희망의 씨앗입니다”

신종플루·겨울방학·폭설 여파 혈액 부족사태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자신의 건강도 체크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내 가족의 문제. 막상 긴급히 수혈이 필요할 때 수혈받을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애다 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해 8월부터 혈액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광경들을 지켜보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저에게 감동을 준 사건은 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총장로 헌혈의 집에 찾아온 일가족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맞아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가족 모두가 헌혈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가족의 잠깐 희생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기쁘게 웃으면서 행복해하던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으며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나라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 누군가의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본받

아야 할 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메말라갈수록 사람들은 인심이 메말라가고 아름다운 희생의 삶은 차츰 시들어 간다면 정작 수혈이 필요한 많은 생명은 누가 살릴 수 있었습니까?

특히 2009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신종플루엔자 확산으로 말미암아 헌혈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혈액으로 전염된다는 연구결과도 없었지만, 초기 증상이 감기증상이었기에 헌혈장소에서 감기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감기를 앓았던 사람은 헌혈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많은 인원이 헌혈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사고로 급히 혈액을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 고령적으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100만 명의 폭설과 극심한 한파 때문에 헌혈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추위 때문에 헌혈을 다음으로 미루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헌혈인구의 60%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방학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특히나 이번 겨울은 100만 명의 폭설과 극심한 한파 때문에 헌혈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추위 때문에 헌혈을 다음으로 미루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수혈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고 한 번쯤 생각



겨울철, 학생들의 방학과 겹쳐 혈액보유량이 부족하다. 자발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헌혈을 하려면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는 16세 이상, 체중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 혈압, 맥박, 체온이 정상이어야 하며, 현재 치료 중이거나 약물복용 중이면 헌혈할 수 없습니다. 헌혈 전 문진과정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건강체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헌혈 후 1~2일 정도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될 뿐 아니라 조혈모세포 작용이 활성화되어 신선한 혈액이 왕성하게 만들어져 말초기관까지 원활하게 순환됨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립니다. 가족의 질병이나 가정의 우환은 특정가정에만 찾

아오는 손님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가정에 불청객처럼 찾아올 줄도 모르는 그 시간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건강은 건강할 때까지 지키듯이, 헌혈도 할 수 있을 때 매우 급한 상황을 위해서 대비하는 마음으로 평상시 헌혈에 참여하여 주시고, 헌혈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62-6000-6000번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도움을 들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Give Blood, Save Life. 당신의 헌혈, 생명을 구합니다.



김종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인턴사원>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90대 노모와 함께 3년간 재활용품 팔아 모은 수익금 기부하신 장충의씨, 우리 이웃들의 큰 행복입니다

“좋은 일 해야지”하는 생각으로 살아 왔습니다. 마음에 얹힌 것 없이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광주시 북구 운암2동 장충의(70)씨는 어머니 김서심(93)씨와 함께 수집한 폐지와 빈병, 고철 등을 팔아 3년간 모은 35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작은 액수라 할지 모르지만 장씨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활동적인 성격 탓에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집안일보다는 통장, 교통봉사대, 사랑의 집 고쳐주기 단장 등을 하며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등 힘써오다 2년 전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해졌다. 이후 운동 삼아 시작한 것이 재활용품 수집.

“처음에는 누가 알아볼까 창피하기도 해서 모자를 꼭 눌러쓰고 다니기도 했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폐지와 빈병 등이 모이면 그때마다 고철상에 내다 팔았다. 그렇게 1천원, 2천원 모은 통장 입금 횟수가 이젠 다섯 번이나 된다. 사고 후 무릎 수술을 크게 해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있는 것이 불편한데도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교통봉사를 할 적에 사람들이 고생한다며 음료수를 주고 갈 때는 하는 일에 보람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쉬고 싶은 날보다 밖에 나가 쓰레기 줍기, 방범 활동을 하는 날이 많고 즐겁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틈나면 교통정리에 나서는 등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더 열정을 쏟았다. 그 덕에 북구청장 표창을 비롯해 각종 표창



장충의(왼쪽)씨가 어머니 김서심씨와 함께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통장을 들고 웃고 있다.

을 받았다. 이렇듯 봉사에서 보람을 찾으며 사는 삶은 모두가 가족들이 말없이 믿어준 덕분이다.

“있는 것이야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살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것 뿐입니다. 자식들도 뭐 주려는 욕심 안 부리고 각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품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봉사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희·광주시 북구 용봉동

클릭! 맛집



입맛 돋우고 스트레스 확 풀고~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매운 맛에 여성·아이들도 즐겨 찾아

■광주 조선별관 ‘매운돼지갈비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맵고 자극이 강한 음식이 인기라고 한다. 매운맛이라도 의지해 잠시 시름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남구 월산4동 996-65번지, 무등시장 제일맨션 앞 조선별관(업주 하현기) 매운돼지갈비찜의 매콤한 맛에 겨울 칼바람도 울고 간다.

매운 양념에 들뜬 스테이크 갈비 한 점 뜯으면, 어깨를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살며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코를 쏘는 향기 때문에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리지만, 속이 얼얼할 정도로 맵지는 않다. 입술만 살짝 맵고, 속에 들어가면 달콤한 맛을 낸다.

비결은 3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과 각종 과일, 태양 초 등으로 맛을 낸 양념에 있다. 이 양념에 1시간 가량 고기를 먼저 삶아내, 씹을 때마다 고기 사이사이에 있는 양념이 혀를 자극한다. 약간 불에 삶아내기 때문에 양념이 고루 고기에 배다.

중독성 있는 매운맛에 타지역 아줌마 부대도 원정을 온다. 자박자박 끓는 양념은 중독성도 있어 먹을수록 입안에 감긴다. 텁텁하지 않고, 입에 살살 감긴다. 매운 양념에 조린 감자, 당면, 떡, 파, 양파, 양배추, 대파, 당근도 곁들여 먹을 수 있다.

20여년 간 식육점을 운영했던 주인이 매일 갖 잡은 싱싱한 고기만을 선별하기 때문에 씹는 맛이 살아있다. 핏물을 충분히 빼줘 돼지고기 특유의 비릿한 맛도 없다. 냉동을 시키지 않아서 육질이 연해 아이들도 좋아한다. 고기 인심도 넉넉해 마다 보면 배가 부를 정도.

특별하기 넘쳐나도록 내오는 계란찜은 불붙은 속을 달래기에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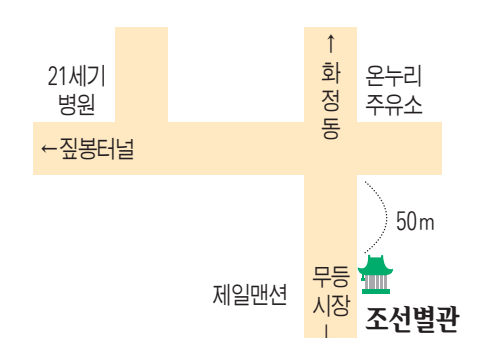
다 먹은 뒤, 매운 양념을 뜨거운 밥에 쓱쓱 비벼 먹는 맛도 좋다. 날치알, 김 가루, 참기름을 곁들여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포장도 가능. 매운돼지갈비찜 1인분 9천원. 비빔밥 2천원. 문의 062-351-888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비빔밥>

■찾아가는 길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월 9일 9시 30분 **2월 1일 시작반** **사대생 시험패턴 변화바람**

임용고시복교육해정지 **6/6**

와닿았다. 똑같은 공무원 대우, 채용안원과 시험기회가 많다.

»»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

9월 문제풀이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234-0234**